

큰스님 수행한담

가정은 저절로 도량



◇지난 92년 법륜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대만에서 열린 세계불교동수회(同修會) 총회에 참석해 불광산 성훈대사와 '불일증취'를 다짐하는 패를 상호 교환하고 있는 일화스님(사진 왼쪽).

“해가 중천에 떠 있다해도 눈을 감으면 볼 수 없듯이 지혜의 눈 뜨지 않으면 부처님의 대광명 볼 수 없어요

나는 당연히 중으로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나이되도록 새벽예불을 모시고 있고, 예불후 2시간 동안 관음염불을 하며 주력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꼭 한번씩은 108참회문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은사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이 대단하다고 열심히 주력할 것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이가 많아 있으면 그 주변은 온통 환해진다고 합니다. 경전에는 다라니를 외고, 경전을 외는 사람이면 그곳에는 풍년이 들고, 재앙이 없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불교를 믿어도 큰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쌓아 중생을 제도하는 몸인 까닭에 그 이름만으로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관세음보살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보살이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덕

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교육에는 무척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복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전에도 “생각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복을 짓고 안 짓고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복짓는 일이 지천입니다. 쉽게 말해 복 짓는 행위란 남에게 덕이 되는 일입니다. 신발이 삐들게 놓여 있으면 바르게 놓고, 길 가는 이가 목말라 하면 물 한그릇 떠 주는 일, 이 모두가 남에게 덕되는 일이며 자신에게 복짓는 일입니다.

다. 나는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세기를 넘게 출가 스님으로 생활해 오면서 확실히 얻은 것이고 은사스님께 받은 가르침이기도 해서 금생에 지은 인연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출가 스승복이 참으로 컸습니다. 마곡사로 출가해 당시 30대이었던 은사 금담스님의 배려로 바로 강원에서 공부하면서 행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은사스님은 당시의 은사스님이 마곡사 주지이셔서 많

“기도로 흠어진 생각 하나로 모으세요” “물 한그릇 보시도 복짓는 일입니다”

다. 또한 따져보면 사람이 제 몸 아끼는 것이나 별레가 별레 몸을 아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별레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벌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중생을 모두 아끼고 돌보라고 일렀습니다. 일체 생명은 똑같이 한 군데의 생명체에서 시작되므로 더하고 덜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치는 우주의 법칙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자타가 없는 대자대비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남을 좋아해도 편애를 합니다. 치우쳐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마음을 맑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

다. 지 않은 연세에도 마곡사일과 예산 향천사 일 등 두가지나 돌보셔야 했습니다. 나도 은사스님을 시봉해야 하기에 강원 공부하다가 스님 따라서 산골길로 걸어서 60리나 떨어져 있는 향천사 살림도 돌보곤 하느라고 강원을 6년이나 다녔습니다. 그후 동국대학교 전신인 해화전문을 다녔으니 이래저래 내전과 외전을 겸비하게 해주신 스승의 이글어주심이 그저 오늘 이렇게 감사할 뿐입니다. 교학을 했던 참선을 실수했던 나는 어려움이 지극한 마음으로 하루 한 때를 잡아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기도 정진하지 않고 그저 말로 입으로만 붙자요 하는 것은 엄밀히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그저 틀이 나는대로 또는 틀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을 쌓고 복을 짓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흠어진 생각을 하나로 종합해 정신통일 하는 것으로 참선 염불 특경 등도 모두 정신통일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비단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마다 독특한 기도법이 있고,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사스님들을 비롯하여 유명한 이를 보면 기도를 통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부처님과의 교류도 되고 정신도 맑아져 잔병도 부지불식간에 낫기도 합니다. 참선이야 선지식 아래에서 올바르게 배워야 하지만, 염불 기도는 정한 마

나의 수행일기



김문숙

(부산불교신문협회 고문)

부처님은 선(善)한 일은 서둘러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늘 그 말을 불자의 사명으로 삼아 가슴에 새긴다.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90년 '정신대', '위안부'라는 낱말은 청춘벽력같이 내 앞에 떨어졌고, 식민지 역사의 가장 암울한 산 증인 정신대 할머니들의 인간으로서의 명예회복과 대일 배상 법정투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회로부터 닫혀 있던 할머니들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다. 웅어리진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할머니들에게 맺힌 한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풀어보라며 염불테이프도 들려주고, 불교책도 가져다 주고, 선은 결국 승리한다며 할머니들을 북돋으며 인간적으로 다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내 스스

2천5백여년전의 부처님 또한 무지로 가려진 우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 팔만사천의 무량 법문을 설했듯이 나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었고, 지난 4월에 서야 일본 재판부로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30만엔 배상판결을 받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울적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때마다 나는 범어사로 향한다. 일주일에 들어서면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처님의 변함없는 미소가 내 마음을 다독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범어사 법당에 앉아 (화엄경) 현수품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을 정리한다. '보살이 발심하여 진리구함은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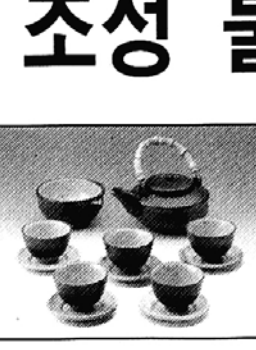
위안부 진상 밝히는데 심혈 '소외된 이들의 고통나누자' 서원

로는 매일 잠들기 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108배 정진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야 할머니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92년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해 6년 동안 21번의 공판을 치렀다. 공판 때마다 할머니들을 데리고 현해탄을 건너다니며 재판을 했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위안부의 진상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인 그리고 비열한 전쟁 책임회피의 비열함을 온 세상에 알렸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 일은 힘없는 내게는 너무나 벅차고, 고생스럽고, 험난한 일들이었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내재돼 있는 큰 힘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꼭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났고, 그 힘이 바로 본래 부처인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

이 없지 않나. 불법승계 신심내에 보리심을 내었다. 오욕, 왕위, 풍요, 쾌락, 명예 따위 구함 아니고, 오로지 중생고를 없애고 세상에 이익주려 발심하였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타를 주고, 불국토를 장엄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리며, 정법을 바로 닦아 진리를 깨치고자 발심하였다. 나 또한 발보리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고,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원을 세운 이상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고 말이다. 나는 현재도 소외받는 우리사회의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행한 여성들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개설한 부산 여성의 전화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사회의 일원인 여성들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불이익을 해소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 마련된 이곳 여성의 전화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앞으로 도 깨어있는 삶을 이룩하고 더불어 여아가기 위해 더욱 발심수행을 할것을 다짐한다. 우리 또한 결국에는 부처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끝)



초의선사 성상



초의문화재단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현창사업에서 복원되는 생가에 모신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초의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동함금 200,000 이상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시킨 [100g x 2동(5~6만원 상당)] 문수차·보현차를 동함금 30,000 이상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한국의 다성이신 초의선사의 성상을 목불로 조성하여 선사께서 출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 생가터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점안식은 내년(99년)음력 4월 5일 선사께서 출생하신 날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衲衣禪院長 釋龍雲 合掌

주최 : 초의문화재단 전화: 02-732-2317 팩스: 02-732-2319 인터넷 http://www.teacha.co.kr/ 국민은행 006-01-0452-791 농협 053-01-193314 우체국 010579-0026125 예금주 김중석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 1. 초의선사 깨서는 대각동계보제존자초의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衲衣大禪師)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과, 선(禪)에 관한 것과,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스님을 가리켜 시, 시화(詩畵)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석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2.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인던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었습니다.
3. 선사께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께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못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셨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년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4.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선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11.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황산리에 7,143)유치비 건립 (생애, 입적등 기록), 수모라 건립 : 20명(초상화, 유품등 전시)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5.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居, 申衡등 많은 명사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시고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